



툭하면 입력 오류... 경찰도 헷갈려

광주지검, 우편물 못받은 민원인 항의 잇따르자 경찰에 경고문 보내

검찰이 경찰의 허술한 '도로명 주소' 작성에 비판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이 '도로명 주소' 작성에 부실하게 해 고소인 등에게 통보될 우편물이 제대로 발송되지 못해 민원인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올해부터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로 주소를 표기하는 '도로명 주소'가 본격 사용되면서 빛어지고 있는 부작용이라는 점에서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

에 고소·고발인을 비롯,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새로운 도로명 주소 입력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두 차례 발송했다.

북부경찰에 발송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상 도로명 주소(새주소) 입력 철저'라는 제목의 문서는 지난 11일 발송된 것으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의 새로운 주소를 잘못 입력, 관련자들에 대한 우편물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데 따른 항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문서를 통해 경찰이 사건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관련자들의 주소를 입력할 때 '본 주소'에서 나뉘는 '가지 주소'의 입력 오류로 우편물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항의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정확한 도로명 주소 입력을 요구했다. 사건 조사를 작성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을 통한 실제 주소와 주민조회상 주소를 반드시 대조한 뒤 사건 관련자들이 추후 각종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도로명 주소(특히 가지 주소)를 입력하는 등 철저히 해 줄라는 것이다.

그나마 광주지검 검사장이나 차장 검사 명의가 아닌, '광주지검 사건과장'이 철저한 수사 기록 작성 요구 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도로명 주소에 대한 허술한 업무 처리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서를 발송했느냐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광주지검 사건과장이 '의명'(依命·명령에 의거함)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통보했는데도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가 하면, 버젓이 공개된 경찰서 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경찰 내부 분위기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 상당수가 자신의 새 주소를 몰라 기존에 지번주소를 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가지 주소의 경우 도로명 주소내 시스템을 통해 찾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져 다른 주소를 '킥스'에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난달 화순 춘양면 도로

10대 여 등 4명 숨진 사건

과속운전 사고였다

지난해 12월 화순군 춘양면 인근 도로에서 10대 여성 등 4명이 숨진 교통사고(광주일보 2013년 12월 18일자 6면)와 관련, 20대 운전자의 과속이 사고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7일 화순군 춘양면 보성~화순 방면 국도 29호선 응도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 정모(28)씨가 과속으로 운전하다 커브길에서 미처 핸들을 돌리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정씨와 김모(31)씨, 문모(여·15)양, 박모(여·15)양 등이 4명이 숨졌다.

국수는 우선, 사고 당시 운전석에서 문모(15)양이 발견된 것과 달리 정씨의 상의 섬유질과 운전석 핸들에 묻은 섬유질이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운전자를 정씨로 지목했다.

국수는 또 사고 현장 스키드 마크 등 분석, 정씨가 해당 도로 규정 속도(시속 80km)보다 30km 이상 과속한 것으로 짐작 결론지었다.

국수는 아울러 차량에 부착된 GPS 확인을 거쳐 정씨 일행이 목포에서 영암~순천간 고속도로를 통해 '보성 차발 빛죽제' 현장에 들렀다가 광주로 이동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장애인 사랑의 떡국

광주 북구 장애인 복지회(이사장 최홍규) 지원봉사자들이 설 연휴를 일주일 기량 남겨 둔 23일 오후 복지회 4층 강당에서 장애인 기구에 전달할 떡국용 가래떡을 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혁신도시 기반공사先 준공처리 빛가람사업단장 입건

전남개발공사 직원 2명도

또 윤모(44)씨 등 전남개발공사 직원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공자 대표 배모(56)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공무원인 장씨는 지난 2012년 12월 20일 공동혁신도시 2공구 기반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선 준공

치지 못한 데 따른 지역 배상금도 부과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한 달여 전 자녀 결혼식 때 관련 건설업체 10여명에게 50만~100만원씩 모두 900여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 등 2명은 공사지연 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준공검사서를 미리

작성해 주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입건됐다. 배씨는 자전거도로 등 공사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을 하고 불법적으로 일괄 하도급을 줘 공사를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들은 '이전 기관들이 입주하는 데 준공검사서가 필요해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 준공 처리를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도로명주소 검색하면 관할 주민센터 확인 가능

도로명주소로 검색하면 관할 주민센터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관할 주민센터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주민센터 검색을 할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광주 학동중심사업구역 4번 출구 앞

"여기는 무법천지"

불법주·정차 차량들

인도·소방도로 점령

단속도 양심도 사라져

지 약 500m 가량이나 이어졌다.

인도 불법 주·정차 문제를 놓고 운전자와 상인 간 말다툼도 찾다는 게 상인들의 하소연이다. 상인 최모(48)씨는 "가게 앞에 주차하는 운전자에게 차주를 하지 말라고 하면, '이 땅이 네 땅이네'라고 오히려 성을 낸다"면서 "인도에 주차를 하다가 행인을 치는 사고도 자주 일어난다.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단속 주체인 동구는 그러나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단속에 나서지 않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해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상인·행인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단속 인력이 부족하면 차량 진입을 막는 '볼라드'(차량진입방지봉)라도 설치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이 지역의 경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민원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인력이 부족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주민 요구대로 '볼라드'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까당 30만 원 이상 예산이 소요돼 이미 저도 쉽지 않다. 수시 단속을 통해 인도 불법 주차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도박판서 돈 잃자 흥기 들고 위협해 본전 찾아



○...도박판에서 잃은 본전을 찾기 위해 흥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아간 30대 남성이 도박의 특수강도혐의까지 적용돼 구속될 처지.

○...23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박모(35)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3시께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A당구장에서 우연히 만난 손모(39)씨 등 4

명과 숙청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300만원을 잃자, 곧바로 집에서 흥기를 가져와 위협하고 300만원을 뺏은 혐의.

○...박씨는 경찰에서 "당구장에서 만난 사람과 도박을 했는데 두관만에 300만원을 잃어,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도인 것 같아 화를 참을 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개>

매각 물건	소 재 지 및 면적 [㎡]	용 도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 고
[아파트]				
2013년경 1 16153 [복구 각하동 529 무등파크맨션 1동 3층 30호 8호 59.85㎡]	아파트	88,000,000 [2013년경 3031 [총 88,000,000원]]		
2013년경 1 21978 [복구 각하동 20호 102동 2층 207호 [문흥동 문호설립이아파트] 59.802㎡]	아파트	103,000,000 [103,000,000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 2013년경 19074 [서구 광원로 23번길 8 1층 11.52㎡ 2층 1호 26㎡ 126㎡ 4층 103.29㎡]

2 2013년경 19838 [동구 창동 13-2 54.9㎡]

3 2013년경 19845 [동구 창동 13-3 137.9㎡]

4 2013년경 21282 [영광로 13-2 54.9㎡]

5 2013년경 23127 [남구 구성로 26번길 15-8 25.8㎡]

6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7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8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9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10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11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12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13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14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15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16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17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18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19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20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21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22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23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24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25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26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27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28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29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30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31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32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33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34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35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36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37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38 2013년경 23486 [광신로 405 245㎡]

39 2013년